

‘자리 나눠먹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광주시의회

시의장 선거 표심 쟁탈전 ‘합숙’ 등 구태 총동원

조선 의원들까지 상임위원장 약속 받고 특정후보 지지

8일 치러질 제7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자리 나눠먹기’, ‘합숙’ 등 구태정치가 총동원되는 등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

일부 조선의원들은 의장 후보에 대한 자질과 능력 검증 없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약속받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우려했던 ‘일당 독점’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제7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문상필(북구 3)의원과 조영표(남구 1) 의원 간 2파

전’이 전개되면서 조선 의원들의 표심 확보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총 22명의 시의원 중 통합진보당 의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새정치연합 소속이고, 이 가운데 재선 의원이 7명, 조선의원이 15명이라는 점에서 조선 의원들의 표심이 의장 선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두 의장 후보들은 조선 의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의장 후보들 모두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지만, 조선 의원들은 단 한 차례도 후보 검증에 대한 토론 회 등의 절차 없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약속 받고 지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의장 후보 측에서는 광주 북구 을과 광산구 갑 출신의 조선의원이 각각 부의장 2석을, 광주 서구 출신 2명의 조선의원이 운영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장을, 남구와 북구를 출신 조선 의원들이 각각 교육위원장과 환경복지위원장으로 나서기로 하는 등 ‘자리 나눠먹기’가 이미 끝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의회 전체 의원 58명 가운데 30명의 조선의원들이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도민의 입장에서 자질과 능력을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장 후보에 대한 철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강기정·김동철 의원 중립 속에 일

부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시의원들을 단속하는 등 ‘입김’을 불어넣고 있고, 전반기 의장 선거를 지역위원회 간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특정 의장 후보 측은 의장 선거를 앞두고 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합숙’까지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구태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과의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일당독점 체제가 예상되는 만큼 같은 당 소속인 민선 6기 운영한 광주시장 체제를 견제하고 감사·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달린 시의회상을 구현해야 하는데도 조선들이 벌써부터 의장 선거를 통해 ‘자리 욕심’을 부리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6일 오전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재 제공>

팽목항서 쓰레기 수거·설거지하는 강운태

시장 이임식 다음날부터 봉사

실제 강 전 시장은 지난 1일 팽목항을 찾았다. 강 전 시장은 집단 천막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설거지, 세탁 등을 묵묵히 해내고 있다는 게 주변의 말이다.

강 전 시장은 “이제 겨우 실종자 가족들과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됐는데, 갑자기 (봉사내용이 인터넷 등에) 노출돼 실종자 가족은 물론 함께 있는 자원봉사자를 대하는 것도 민망하게 됐다”면서 “당분간 팽목항에 머무를 계획이었는데, 주변의 분위기를 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하루 일과는 새벽 기상과 함께 리어카를 끌고 팽목항 일대 쓰레기 수거·분리로 시작된다. 강 전 시장은 이후 자원봉사센터에서 매일 배정하는 업무에 따라 식사 후 테이블 정리, 설거지, 이불 세탁 등을 주로 하고 있다.

강 전 시장은 “이제 겨우 실종자 가족들과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됐는데, 갑자기 (봉사내용이 인터넷 등에) 노출돼 실종자 가족은 물론 함께 있는 자원봉사자를 대하는 것도 민망하게 됐다”면서 “당분간 팽목항에 머무를 계획이었는데, 주변의 분위기를 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악수하는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중 경제동상협력포럼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항일전쟁·광복 70주년 공동 기념 제안

한중 정상회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2015년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및 한반도 광복 7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이날 서울 청와대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내년은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의 70주년이자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및 한반도의 광복 70주년”이라며 “양측은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4일 공식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이 내용은 전날 중국 중앙(CC)TV의 ‘신원론편보(新聞聯播)’와 신화망(新華網) 등을 통해 먼저 공개됐다.

이는 시 주석이 한중 양국이 제2차대전 종전 및 항일전쟁 승리를 공동으로 기념하자고 우리 측에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올해 들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년은 세계의 반(反) 파시스트전쟁 및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이라고 강조했으며 러시아와는 내년도에 경축 기념행사를 공동 거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 주석의 제안은 물론 일본의 과거사 왜곡 등에 대한 양국간 공동대응 방안도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구상’ 간에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주요 경제인과 정부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중 경제동상협력포럼’에 참석,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 김태호 광주 방문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태호 의원(52·김해)이 영호남 화합과 정치혁신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난 5일 광주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중심사 입구 일대에서 호남 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새누리당 전당대회 출마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지급처럼 계속해서 독식하는 패권적 지역주의는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이자 패권적 진영논리의 지역적 산물이다”고 말했다.

장원섭 “어등산 골프장 광주시에 귀속해야”

“계약·약속 지키지 않으면 무효”

‘어등산리조트(골프장)의 광주시를 상대로 한 ‘기부토지 반환 소송’(광주일보 3일자 7면, 4일자 1면)과 관련, 장원섭 통합진보당 광산구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어등산 골프장의 광주시 귀속”을 주장하는 논평을 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장원섭 예비후보는 6일 ‘어등산리조트는 모든 시설을 광주시에 반환하라’는 논평을 통해 “어등산리조트측이 법원 강제조정을 통해 골프장을 개장해 놓은 광주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 줬더니 보파리 내놓으라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장 예비후보는 “시민의 반대에도 광주의 명산이며 의병활동과 전설이 살아 있는 어등산에 골프장을 비롯한 관광호텔, 근린공원, 주민체육시설을 사업(어등산 관광단지)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

은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겠다는 조건 때문이었다”면서 “하지만 시민과 약속한 휴식공간 등은 조성하지 않고, 일부 부지를 기부하고,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골프장만 개장한 뒤 갑자기 기부했던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가하면 장학기금도 못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장 예비후보는 “모든 계약과 약속은 애초 계획대로 지키지 않으면 무효”라면서 “법원과 광주시는 애초 계획대로 휴식공간 등을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현재 운영중인 어등산골프장 등 모든 시설도 광주시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어등산리조트는 골프장 우선 개장을 조건으로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 273만㎡ 가운데 43%(300억원대)에 해당하는 경관녹지와 유원지 터 117만㎡(300억원대)를 광주시에 기부했다.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영골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대향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